



에이즈 예방홍보 전광판



본회 경기도회 창립기념식에 참석한 내외 귀빈들

일부 병의원 에이즈검사 기피

천안지역 관내 일반 병·의원에서 에이즈 감염검사를 회피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병·의원들이 에이즈 검사를 회피하는 이유는 에이즈 양성반응이 나올 경우 상부기관에 보고해야 하고 환자를 늘 관리해야 하는 불편이 따르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동남아 등 해외여행 시 감염기회를 가진 사람들이 불안한 마음에 자유롭게 병의원을 찾아 감염여부를 진단할 수 없어 애태우고 있다. 천안시보건소 관계자는 「일반병원에서 에이즈 검사를 회피하는 것은 진료거부행위와 다를 바 없다」며 검진회피 사실이 확인되면 행정 처벌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문래 청소년 수련관 청소년의 달 축제에 에이즈 예방 캠페인

본회는 문래 청소년수련관에서 5월 12일(토) 오후 1시부터 6시까지 개최한 '청소년 어울마당' 축제행사의 일환으로 에이즈예방캠페인을 실시하였다.

이번 캠페인에서는 에이즈 OX퀴즈, 리플릿과 에이즈 예방 배지 배포, 에이즈예방 상담, 에이즈 열고개 풀기 등의 다양하고 흥미로운 프로그램으로 청소년들에게 에이즈 예방에 대한 인식을 높였다.

바이러스 진단 단백질 칩 나온다

다이아 칩(대표 김수정)은 칩 1개로 300여명이 에이즈 바이러스, C형 간염바이러스 등에 감염됐는지 여부를 동

시 진단할 수 있는 단백질 칩과 판독기, 진단장치 등을 하반기 중 발매할 계획이라고 28일 밝혔다.

이 회사는 또 진단대상물 B형 간염바이러스, 혈액종양 바이러스, 유행성 출혈열을 일으키는 한탄바이러스, 자궁경부암을 일으키는 파필로마 바이러스 등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한다.

마약주사 맞다 에이즈감염 첫 확인

국립보건원 발표에 의하면 올 들어 3월말까지 새로 발생한 에이즈 감염자는 모두 70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59명, 99년의 42명에 비해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마약주사 과정에서 에이즈에 감염된 것으로 추정되는 환자가 올해 처음으로 발견됐으며, 고교생 1명과 대학생 1명 등 10대 감염자도 2명이 새로 발생했다.

국립보건원은 3월말 현재 우리나라의 에이즈 감염자는 1,350명, 환자는 209명이고 지금까지 302명이 에이즈로 사망했다고 밝혔다. 또 올 3개월 동안 에이즈 감염자 70명이 추가 확인됐으며 감염자 14명이 환자로 전환됐고 16명이 사망했다.

특히 53세와 44세의 남자가 마약주사를 맞는 과정에서 에이즈에 감염된 것으로 처음 확인됐다.

또 10대인 고교생 1명과 대학생 1명이 성접촉을 하는 과정에서 에이즈에 감염돼 지금까지 10대 미만의 에이즈 감염자는 32명으로 늘어났다.

구세군 아프리카 에이즈 사업 연수

구세군 에이즈예방사업단에서는 아프리카의 에이즈 실태를 더욱 이해하고 에이즈관련 프로그램들의 유형을 돌아보고 구세군에서 국제적으로 실시하는 에이즈관리사업 연수과정을 이수하기 위해 아프리카를 방문하였다.

이번 방문에는 구세군 대한본영 사회복지시기관 손명식 부정령과 에이즈예방사업단 담당관인 유미혜 참령 및 에이즈 대책팀 팀원 김난선 참령이 참석하였다.

3월 13일부터 4월 7일까지 남아공화국의 요하네스버그 및 흑인거주지역인 Soweto 등지의 에이즈관리사업을 돌아보고 잠비아의 루사카근교 치칸카타 구세군 에이즈 전문병원에서 실시하는 에이즈 사업관리자 연수과정을 2주간에 걸쳐 수료하였다.

그리고 UN에서 에이즈 위기 지역으로 지정한 잠비아 북부 Ndola 지역을 방문한 후 잠비아 수도의 에이즈 관련 사업을 시찰하였다.

부산에서 에이즈예방 전광판 및 지하철 광고

본회 부산광역시회는 부산시내 연산로터리에 에이즈 예방 홍보분구를 담은 전광판 홍보를 5월2일부터 5월31일까지 한 달간 실시 중에 있다. 전광판은 에이즈상담전

화 안내와 '에이즈! 예방할 수 있습니다.' 라는 표어가 들어 있다.

또한 부산지하철 1호선과 2호선에 '에이즈! 당신은 안전한다?' 라는 문구와 상담전화, 홈페이지 주소, 이메일 주소, 붉은 리본의 의미를 안내하는 내용으로 3월2일~4월 19일간 실시되었다.

에이즈감염인을 위한 요양쉼터와 에이즈정보센터 운영

대한에이즈예방협회는 에이즈감염인을 위한 요양쉼터를 운영하고 있다. 이 요양쉼터는 숙식할 곳이 마땅치 않거나 지방거주자가 치료를 위해 서울로 왔을 경우 단기간 체류할 수 있으며 금년도에만 연 체류인원이 474명에 달하고 있다.

감염내과 전문의를 통한 방문의료지도를 실시하고 있고, 약 20여 명의 수사, 수녀 기타 자원봉사자가 활동을 하고 있으며 이들에 대한 간병 및 호스피스 자원봉사자 교육도 금년에 2회에 걸쳐 실시되었다.

에이즈에 관한 최신 정보와 상담을 제공하고 있는 에이즈정보센터는 전화상담 1,597건, 면접상담 112명, 이메일상담 866건, 인터넷 홈페이지 이용자 78,734명, 시청각 교육 4회, 청소년동료교육 1회(10명)를 실시하였다.

본회 경기도회 창립

대한에이즈예방협회 경기도회의 창립기념식이 2001년 5월9일 경기도 의정부시 예술의 전당에서 개최되었다. 윤배중 (지방공사 경기도 의정부 의료원장)씨가 초대회장으로 취임하였으며 이미경(경기도 제2청 여성국장), 한인석(경기도 행정부지사), 한택수(의정부 부시장) 등의 내외 귀빈을 비롯하여 150여명의 관계자가 참석하였고 주혜란(STOP AIDS 운동본부 회장)씨가 선언문을 낭독하였다.

전국에서 서울 다음으로 감염률이 높은 경기도 지역의 에이즈예방과 관리를 위해 민·관이 협력하고 공동으로 대처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다.

여러분의 후원과 격려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2001년 3-4월)

강만수	10,000	엄정아	30,000
김명지	30,000	유금숙	10,000
강연황	10,000	이강준	120,000
고정혜	10,000	이상은	310,000
광주여고	20,000	이명숙	100,000
김남중	50,000	이응훈	30,000
김성아	20,000	이종경	30,000
김연희	10,000	이준해	100,000
김영웅	10,000	이창우	400,000
김용겸	10,000	전재우	10,000
김의석	100,000	주양자	10,000
김정숙	10,000	차영자	20,000
김정순	10,000	한영란	10,000
김준명	200,000	황유식	20,000
김친길	50,000	황의관	10,000
박원중	10,000	부산광역시회	
박은숙	100,000	서정희	20,000
박진건	10,000	정두천	10,000
송연수	20,000	조근체	10,000
신영오	100,000	한연식	10,000
양옥자	10,000	하태동	10,000
엄경미	10,000	합계	2,080,000